

日本에서의 마르크스主義의 受容*

朴 忠 錫**

I. 序 論

II. 明治社會主義의 構造

III. 大正마르크스主義의 性格

IV. 마르크스主義와 「社會科學」

V. 結 論

I. 序 論

本稿는 1890年代로부터 1930年代에 걸쳐 日本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運動, 思想, 理論등이 어떻게 歷史的으로 變容해 갔는가를 그 受容樣式에 註目하여 檢討하려는 것이다.

日本에 있어서의 社會主義運動은 淸日戰爭以後, 이미 資本의 原蓄期를 지나 日本의 資本主義化—産業化가 進行되는 과정에서 이로 因하여 제기되는 諸般社會問題를 계기로 하여 知識人들이 社會主義에 대한 知的 關心이 高潮되면서 勞動運動 내지는 社會運動의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日本에 있어서의 社會主義運動이 知識人들의 知的 關心 내지는 勞動運動, 社會運動의 領域을 넘어서서 마르크스主義思想을 理論的으로 理解하여 이의 日本化를 試圖하게 되는 것은 1920年代以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時期를 前後하여 그 歷史的 推移를 보면, 後述하는 바와 같이 「社會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社會改良을 志向한 明治社會主義는 1900年代에 들어서면서 片山 潛의 「我社會主義」, 幸德秋水의 「社會主義神髓」의 思想的 變轉——例를 들면 片山 潛에 있어서의 社會改良主義와 社會主義의

* 이 研究는 1985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 梨花女子大學校 政治外交學科 教授.

混同, 그리고 幸德秋水에 있어서의 「志士·仁人」의인 社會主義論등——을 거쳐, 幸德秋水가 「나의 思想의 變化」의 發表를 통하여 「直接行動論」을 提示하여 明治社會主義의 社會改良의 志向을 全的으로 否定함으로써 그 實踐的 運動에 있어서 幸德秋水의 「直接行動論」과 片山 潛·團添鐵二 등의 「議會政策論」에로 分裂해간다.

大正社會主義는 明治社會主義에 있어서의 「直接行動論」을 継承하여, 한 편으로 議會를 통해서 國家權力을 志向하는 一切의 政治運動을 否定하고, 또 한편으로는 크로포트킨(P.A. Kropotkin) 등의 影響을 받아, 社會的 理想으로서 「相互扶助」와 「連帶的 責任」을 基조로 하는 「自治」를 志向하는가 하면, 社會的 實踐으로서는 國家權力을 否定하고, 경제적인 「直接行動」= (총동맹파업)을 통하여 政治體制와 經濟權力을 파괴하여 노동자에 의한 直接的인 産業管理를 주장하는 아나아코·신디칼리즘(anarcho-syndicalism)의 勞動運動을 志向한다.

그러나 大正社會主義는 러시아革命觀의 分極化를 계기로 하여 3개의 方向으로 分化한다. 즉, 첫째로는 러시아革命의 충격에 對抗해서 「直接行動論」을 발전시킨 大杉 榮등의 아나아키즘의 方向이며, 둘째로는 大杉등의 아나아키즘과는 전혀 反對의 方向으로 발전한 高島素之 등의 國家社會主義의 方向, 그리고 셋째로는 러시아革命의 認識을 통하여 「政治」의 領域을 再發見함으로써 「政治」의 否定으로부터 政治的 對抗에로」의 「方向轉換」을 주장하는 이른바 山川 均의 마르크스主義의인 「無產階級運動」의 方向轉換論이다.¹⁾

그러나 마르크스主義의 方向을 취하고 있었던 山川의 「方向轉換論」은 1920年代 中半에 들어서면서, 福本和夫의 이른바 마르크스主義的인 要素를 「分離」하여 結晶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分離·結合論」에 의해서 批判된다.

1) 日本政治學會編 『年報『政治學』——日本の社會主義——(岩波書店, 1968年), pp. 92~96 참조.

日本에 있어서의 마르크스主義思想의 理論的 深化는 以上과 같은 思想·運動의 渦中에서 1920年代 以後, 1930年代에 걸쳐서, 한편으로는 實踐的 運動의 思想的 基盤으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日本社會의 歷史的 發展에 대한 知的 研究의 一環으로서의 마르크스主義的인 「社會科學」의 形態로 定着해 간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以上에서 言及한 明治·大正社會主義運動의 歷史的 推移속에서 마르크스主義가 어떠한 形態로 定着해 갔는가를 考察하고자 한다.

Ⅱ. 明治社會主義의 構造

明治社會主義는 淸日戰爭을 전후한 日本의 資本主義的인 産業化過程에서 대두되는 「社會問題」——「勞動問題」, 「貧民問題」, 「經濟問題」, 「風俗問題」(禁酒, 廢唱 등)——를 계기로 하여 주로 1880年代의 美國의 時代思潮——社會主義와 勞動運動——의 영향을 받으면서 知識人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²⁾

1. 初期의 傾向

이 時期의 知識人들의 社會主義에 대한 關心을 보면, 1897년에 「社會問題研究會」, 1898년에 「社會主義研究會」, 1900년에 「社會主義協會」가 발족하고 있다. 이제 이들 團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社會問題研究會」는 樽井藤吉, 中村太八郎, 西村玄道를 幹事로 한 團體로서 당시의 民權論者, 國粹主義者, 自由主義者, 기독교교사, 開明的인 資本家등 잡다한 멤버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후에 社會主義運動의 中心멤버가 되고 있는 片山 潛과 幸德秋水도 이 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이 團體는 그 規約 第1號에 「學理와 實際에 의거해서 社會問題를 研究한다」고 되어있는 바

2) 美國으로부터의 社會主義의 영향에 관하여는 同 『年報 政治學』, pp. 10~11 참조.

와 같이, 이는 어디까지나 社會問題를 研究한다는데에 力點이 놓여 있었던 團體로서 社會主義에 대한 思想的 統一이라든가, 社會運動을 志向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團體는 그 멤버의 雜多性 때문에 얼마 못가서 곧 解體되었다. 그 後 이 가운데에서 거의 같은 傾向의 人物들로 구성된 것이 「社會主義研究會」이다. 이 團體는 村井知至, 安部磯雄, 片山 潛, 幸德秋水, 河上 清등이 그 中心멤버가 되고 있었다. 이 團體는 그 規約 第2條에서 「社會主義의 原理와 이것을 日本에 應用하는 것에 대한 可否를 考究한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시 社會主義에 대한 研究團體였으며, 社會主義者의 團體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이 研究團體의 특징적인 것은 幸德秋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教徒들로 구성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이 研究團體의 本거지를 유니테어리언(Unitarian) 協會가 있었던 「唯一館」에 두고 있었는데, 이들의 月例研究會의 題마를 보면, 상 시몽(Saint-Simon), 후리에(F.M.C. Fourier), 프루우동(P.J. Proudhon), 라살(F. Lassale), 마르크스(K. Marx) 등의 社會主義思想에 대한 歷史的 研究, 그리고 幸德秋水の 「現今의 政治社會와 社會主義」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研究 내지는 討議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독교教徒를 中心으로 「社會主義研究會」가 成立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원래 유니테어리언派란 基督教에 있어서 「三位一體」論을 反對하고 神의 單一性(Unity)을 주장하여 예수의 神性을 否定하는 自由主義的, 合理主義的인 기독교의 一派로, 특히 近世 以後 經驗論思想의 발달과 함께 英·美에서 일어난 宗派이다. 이 유니테어리언 協會는 1825년에 英·美에서 창립되고 있는데, 특히 美國의 유니테어리언協會는 휴머니즘과 合理主義의 경향이 강하여 그 自由主義的 경향은 正統的인 기독교의 領域을 벗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유니테어리언리즘이 日本에 傳來된 것은 1887年 美國유니테어리언派의 선교사 납프(A.N. Napp)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독교와 社會主義가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도 社會主義도 弱者를 동정한다는 것, 그리고 兩者가 모두 平等主義를 唱導하고 있었다는데 있었다.³⁾ 그리하여 당시 「社會主義硏究會」의 멤버였던 安部磯雄은 기독교의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平等에 대해서 社會主義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平等의 주장이라든가, 기독교의 本質과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唯物論的 傾向의 對立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社會主義가 唱導하는 것과 같은 社會가 아니면 도저히 기독교의 道德이 실행될 수 있다고는 믿을 수 없다」⁴⁾고 주장하여 오히려 理想的인 측면에서 兩者의 結合을 論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社會主義에 대한 硏究에 力點이 놓여 있었던 「社會主義硏究會」는 점차 社會的 實踐의 문제로 옮겨 가게 되면서 非社會主義的인 傾向의 人物은 물러나게 되고, 社會問題解決의 實踐을 목표로 하는 「社會主義協會」가 탄생하게 된다. 이協會는 그 規約 第2條에서 「社會主義의 原理를 硏究·討論하여 이것을 日本에 應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종래의 硏究의 立場에서 적극적으로 實踐問題에 파고드는 것을 基本방향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中心멤버는 安部磯雄, 片山潛, 幸德秋水, 西川光二郎, 河上清, 木下尚江 등이었다. 이들이 協會結成 후 발표한 「社會民主黨宣言」⁵⁾에 의하면, 그 基本要旨은 어떻게 하면 貧富의 格차를 타파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軍備全廢, 階級制度全廢, 土地·資本의 公有등을 理想으로 하면서 실제적인 運動綱領으로서 는 8時間勞動制, 勞動組合法의 制定, 普通選舉法의 실시등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知識人中心의 이와 같은 社會主義運動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勞動運動에서부터 社會主義에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日本에 있어서 近代의인 勞動組合의 成立에 관하여 보면, 1897年 4월에 高野房太郎 등을 중심으로 한 「職工義友會」가 그 기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

3) 宮川透·荒川幾男編 『日本近代哲學史』(有斐閣, 1976年), pp. 39~48 참조.

4) 同書, p. 47.

5) 이들은 1901年 5월에 片山潛, 幸德秋水, 安部磯雄 등 6명이 日本 最初의 社會主義政黨인 「社會民主黨」을 結成하나, 當日로 금지처분되었다.

는데, 이 「職工義友會」는 片山 潛등을 영입하여 同年 7월에 「勞動組合期成會」를 창립하고 있다. 이 時期의 勞動運動의 기본적인 方向은 「職工諸君에게 보낸다」(팜프렛트)라든가, 「勞動組合期成會設立趣旨書」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전형적인 勞動組合主義의 立場에서 社會를 改良하려고 하는 것이었으며, 革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資本에 대항해서 分裂을 위한 투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資本家와 勞動者와의 社會的 調和를 이룩하려는 것이었다. 즉, 組合主義的인 勞動運動으로서 그 基本方向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勞動組合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고 동시에 共濟活動과 消費組合을 설립해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여 資本과 勞動의 調和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이 時期에 「社會主義」라고 呼稱되고 있었던 것은 반드시 명확한 統一의인 內容이라든가 體系가 있는 思想이 아니라,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 시공이라든가 후리에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思想,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르크스라든가 라살의 社會主義, 프루우동이라든가 바쿠닌(M.A. Bakunin)의 無政府主義, 그리고 톨스토이(L.N. Tolstoy)의 무저항주의까지도含蓄하는 실로 雜多한 知的 狀況을 反映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實踐運動의 레벨에서도 大衆의인 黨派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少數의 知識人의 계몽운동적인 集團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1900年代에 들어서면서, 적어도 이들 指導的인 社會主義者들 사이에는 상당할 정도의 共通의인 理解가 生成되고 있었다.

즉, 그 中心的인 內容은 첫째로 「生産機關」의 公有와 公平한 分配의 문제였는데, 「社會民主黨宣言」에 의하면, 「우리가 우선 生財組織을 改革(= 公有化)하려고 하는 것은 그 目的이 配財를 公平하게 하는데 있다」⁶⁾고 論하고 있듯이, 「生産機關」의 所有者가 당연히 生産物에 대한 權利를 가지고 있어, 그 結果 分配가 不公平하게 되며, 따라서 「生産機關」을 公有어로

6) 「社會民主黨宣言」(大河內 一男編集「社會主義」, 『現代日本思想大系』 15, 筑摩書房, 1963年), p. 316.

移行시킴으로써 分配의 公平을 可能케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둘째로는 이러한 經濟機構再組織에의 政策에 관하여는 「議會政策」이 主張되었다. 「社會民主黨宣言」에 의하면, 「우리들이 劍戟보다도 銳利한 筆과 舌을 가지고 있다. 軍隊制度보다도 더 有力한 立憲政體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들 手段을 利用해서 우리들의 抱負를 實行하면, 어찌 白刃와 爆裂彈의 도움을 비는 것 같은 愚를 범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들이 여기에 政黨을 組織하는 까닭은, 즉 文明的인 手段인 이들 政治機關을 利用하려는 데 있다. 帝國議會는 우리들의 將來에 있어서의 活劇場이다. 他年の 어느 날 우리 黨이 議員國會場에 多數를 占하게 되면, 이것이 곧 우리들의 抱負를 實行할 수 있는 時期에 到達한 것이 된다」⁷⁾라고 論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당면한 實踐的 運動의 中心은 「立憲政體」를 徹底化시키는 것이었다. 또 이와 같이 그들이 合法的인 議會主義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當然의 要求로서 普通選舉制度의 實施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즉, 明治社會主義者들은 「政治」=「立憲政體」에 대하여 깊은 信賴와 期待를 품고 있었다.

그러면 세째로 이와 같은 社會主義에의 移行과 함께 그들은 어떠한 歷史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의 歷史的 理解를 決定한 가장 一般的이고 基本的인 概念은 「進化」의 觀念이었다. 당시 이 「進化」의 觀念은 스펜서, 특히 다윈의 이름과 결부하여 理解되어, 社會主義는 다윈의 理論을 人間社會에 適用한 것이라는 見解가 제기되고 있었다.⁸⁾ 明治社會主義者들은 다윈의 理論에서 「自由競爭」의 「社會組織」을 批判하는 否定的 概念으로서 「生存競爭」을, 社會主義를 기초지우는 積極的 概念으로서 「進化」를 취하고 있었다.⁹⁾ 그리하여 「進化的 勢」라는 觀念下에 「自由競爭」, 「帝國主義」는 이미 「낡은 것」이며 「世界의 大勢」가 向하고 있는 것은 「社會主義」라고 인

7) 同書. pp. 319~320.

8) 前掲 『年報 政治學』, p. 32.

9) 同上.

식하고 있었다.

明治社會主義의 極點을 장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幸德秋水와 片山 潛은 이 點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社會主義를 嫌惡하는 者여, 눈을 비비고 世界의 大勢를 보라. 社會主義는 명백히 20世紀의 大主義·大理想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대저 지금의 世界를 支配하고 있는 것은 帝國主義 및 軍國主義임은 나 역시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帝國主義 및 軍國主義의 害惡은 지금이야말로 거의 그 絕頂에 達하고 있다.……그렇다, 社會主義는 救世의 大主義이다.……지금이야말로 歐美의 志士·仁人은 무엇보다도 이에 의해서 社會의 改革·救濟를 遂行하기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여 그 勢力은 帝國主義의 害毒이 增大함과 同時에 增大하고 있다」(幸德)¹⁰⁾ 「進化의 大勢를 利導하여 이로써 平和의 革命을 이룩하기를 바라는 것은 革命家의 識慮이다」(幸德)¹¹⁾, 「우리들의 論點은 社會進化의 順序로서 資本家制度가 그 極에 이르면 社會主義에로 進化하는 데에는 赤子が 태어나는 것처럼,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싹트는 것처럼 반드시 社會的 革命이 到來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片山)¹²⁾ 즉, 1903年의 幸德秋水의 「社會主義神髓」와 片山 潛의 「나의 社會主義」는 明治社會主義의 基本 방향을 압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幸德秋水와 片山 潛이 그 實踐運動에 있어서 똑 같이 「議會政策論」——合法議會主義——을 주장하면서도, 兩者의 決定的인 差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幸德秋水가 社會主義運動의 主體를 「志士·仁人」에 追求한데 反해서 片山 潛은 社會主義運動을 組織된 勞動者로서의 勞動組合과 結付시킨데 있었다.

2. 「直接行動論」과 「議會政策論」

明治社會主義는 露日戰爭後 幸德秋水의 「나의 思想의 變化」를 매개로

10) 幸德秋水 「社會主義의 大勢」(『日本人』, 1900年 8月 20日), 前掲 『年報 政治學』, p. 34에서 再引用.

11) 幸德秋水 「社會主義神髓」(前掲 『現代日本思想大系』 15), p. 223.

12) 山川 均 「나의 社會主義」(同書), p. 303.

하는 「直接行動論」이 대두됨으로써 實踐運動의 레벨에서 「直接行動論」과 「議會政策論」으로 크게 分極化하게 되었다.

이 時期의 社會主義의 運動狀況을 보면, 第1次西園寺內閣이 堺利彦, 片山潛 등이 中心이 된 「日本社會黨」의 結成을 승인하였는데(1906年 2月), 이것은 당시 日本의 社會主義者들을 하나로 結集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日本社會黨」의 기본방향을 보면, 그것은 普通選舉權을 기조로 하는 「議會政策論」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美國旅行에서 歸國한 幸德秋水는 1906年 7月 「世界革命運動의 潮流」라는 講演에서 「直接行動論」이 歐美社會主義運動의 새로운 潮流임을 紹介하고, 이어서 1907年 2월에 「나의 思想의 變化」를 發表하여 「議會政策論」의 功罪를 批判하는 한편 「直接行動論」의 主張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당시 社會主義者들 사이에 運動의 戰術을 둘러싸고 論爭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論爭은 日本社會黨第2回大會에서 最高潮에 달하여 이들의 見解는 「直接行動論」, 「議會政策論」, 「兩者並用論」에로 크게 分裂하게 되었다.

먼저 幸德秋水의 「直接行動論」에 관하여 보면, 그는 루옥중(1905年 2月~7月)에는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1905年 11月 美國에 가서는 無政府主義者들과 접촉하고, 또 世界産業勞動者組合(I.W.W.)의 運動도 見聞하여 1906年 歸國하였을 때에는 議會主義를 비판하고 勞動者階級の 直接行動의 必要性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는 「나의 思想의 變化」에서 普通選舉라든가, 議會政策으로서는 참된 社會的 革命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日本에서의 社會主義運動은 단결된 勞動者의 直接行動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社會主義의 目的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이와 같이 幸德秋水가 「議會政策論」에서 「直接行動論」에로 轉換하게 된 根據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오늘의 議會는 지금의 紳士閥, 즉 中等階級이 貴族의 專制政治를 넘어뜨리기 위해 만든 器械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專制政治를 넘어뜨림과 함께, 우리들 勞動階級の 피와

담을 착취하기 위해 案出된 器械이다.……그런데도 勞動階級이 지금 이 紳士閣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역시 이 機械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¹³⁾라고 論하고 있듯이 그는 明治社會主義에 있어서 運動의 原動力이었던 「中等階級」에서 그 主體를 「勞動階級」으로 移行시켰던 것이다. 幸德秋水에 있어서 이와 같이 議會의 役割의 否定 내지는 「中等階級」의 役割의 否定은 歐美先進國, 특히 獨일에 있어서의 「議會政策」의 實態를 그 논거로 하고 있었다. 明治社會主義에 있어서는 獨일帝國과 日本帝國과의 體制的 同一性を 前提로 하여 獨일社會民主黨(S.P.D.)이 그 모델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獨일社會民主黨이 信奉하는 「議會政策」이 日本社會黨第2回大會에 이르기까지 明治社會主義의 基本방향이 되고 있었다.¹⁴⁾ 말하자면, 이 時期의 明治社會主義에 있어서 「議會政策論」에 대한 樂觀主義의인 立場은 獨일帝國에 있어서의 獨일社會民主黨의 活動狀況을 받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1906年 7月の 幸德秋水는 「世界革命運動의 潮流」에서 「350萬의 投票를 가지고 있는 獨일社會黨, 90人의 議員을 가지고 있는 獨일社會黨,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여견히 武斷專制의 國家가 아닌가. 여견히 墮落罪惡의 社會가 아닌가. 投票라는 것, 심히 의존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代議士라는 것의 效果라는 것, 어찌 그리 적은 것인가」¹⁵⁾라고 論하여 日本에 있어서의 「議會政策論」을 否定하는 方向으로 移行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와 같은 「議會政策論」에 反해서 「社會革命, 즉 勞動者의 革命은 결국 勞動者自身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⁶⁾는 認識下에 勞動者의 團結과 이를 前提로 하는 勞動者自身에 의한 總同盟罷業을 革命의 最大의 武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즉 幸

13) 「幸德秋水氏의 演說」(1907年)(林 茂·西田長壽編 『平民新聞論說集』, p. 174, 1961年). 前掲 『年報 政治學』, p. 75에서 再引用.

14) 同 『年報 政治學』, p. 75 참조.

15) 幸德秋水 「世界革命運動의 潮流」. 同 『年報 政治學』, p. 76에서 再引用.

16) 幸德秋水 「余가 思想의 變化」. 同 『年報 政治學』, p. 77에서 再引用.

17) 同書, p. 77 참조.

德秋水에 의하면 社會主義革命이란 經濟組織의 改革이며, 따라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經濟組織外部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한 政治運動이 아니라 經濟組織內部로부터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한 「直接行動」, 그 중에서도 특히 總同盟罷業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幸德秋水의 이와 같은 「議會政策論」에서 「直接行動論」에로의 戰術的인 轉換에는 첫째로, 러시아와 日本에 共通되는 西歐에 對한 後進性的인 認識, 露日戰爭以來의 러시아 革命運動에 대한 親近感등을 前提로, 第1次 러시아革命에 있어서 指導的인 役割을 擔當한 社會革命黨(S.R.)의 영향과 1905年에서 1906年에 걸쳐 渡美中에 접촉한 世界產業勞動者組合(I.W.W.)의 運動의 影響이 있었다.¹⁸⁾

그러면 이에 대해서 片山 潛, 田添鐵二등에 의해 주장된 「議會政策論」이란 어떠한 것인가.

片山 潛의 「議會政策論」은 明治社會主義의 基本방향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는, 첫째로 片山 潛에 의하면, 그것이 「萬國社會黨」의 運動方針과 一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片山 潛은 「議會政策論」에 관해서, 「우리들은 萬國社會黨의 宣言綱領에 따라서 活動하는 者이다. 나는 無政府主義者의 空想을 배격하며, 오늘날까지 나타난 無政府主義의 政策手段에는 絶對적으로 反對한다. ……나는 社會主義者이다. 萬國社會黨員이다」¹⁹⁾라고 論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片山 潛이 「議會政策論」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서는 日本의 帝國憲法이 「議會政策」을 容認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즉, 「우리 帝國憲法은 議會政策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完全無欠하다. 생각컨대, 歐美諸國의 憲法이라 하더라도, 우리 憲法만큼 秩序整然하게 條理가 명확한 것은 없다. 一例를 들면, 英美에 관하여 보자. 그들은 私有財產을 神聖한 것이라고 하여 國家의 法律로서도 所有者의 意志를 어기고서는 어떻

18) 同書, pp. 77~78 참조.

19) 片山 潛 「自然の結果」(1907年)(前掲『平民新聞論說集』, p. 226). 同「年報 政治學」p. 80에서 再引用.

게 할 수가 없다. ……歐美人은 個人的 權利를 憲法보다도 勢力있는 것이 라고 한다. 그러므로 世上의 進歩에 따라서 적당한 法律을 制定해서 社會의 改良을 추진해 간다는 것은 매우 困難하다. 그렇다, 어떤 點에 있어서는 거의 不可能하다. 그러나, 日本의 帝國憲法은 이러한 困難은 전혀 없다. 모든 權利는 人權과 財産 즉, 所有權을 막론하고 모두 法律로서 規定되어 있다. 法律의 規定이 없는 것은 어떠한 權利도 어떠한 財産도 없다. ……이와 같이 議會政策은 우리 日本에 있어서는 完全히 行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政事·政策도 議會를 通過해서 天皇의 御裁可를 받으면 法律이 된다.」²⁰⁾ 말하자면, 片山 潛은 日本의 帝國憲法에 規定된 「臣民之權利」에 대한 法律的 留保가 「議會政策」을 可能케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社會主義의 實現도 可能케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幸徳秋水의 「直接行動論」을 「國家의 規律을 非認하고 議會政策을 非認하는 無政府主義者와 제휴할 餘地가 없다」²¹⁾고 批判하였다.

이에 比해서 田添鐵二의 「議會政策論」은, 片山 潛이 日本의 帝國憲法の 絶對性에 의거해서 「議會政策」을 絶對化하려고 한데 對해서, 이것을 社會主義運動의 多樣한 方法의 하나로서 推進하려고 하였다. 田添鐵二에 의하면, 「議會政策」은 片山 潛처럼 權力 획득의 手段이 아니라, 오히려 議會外部에서 속적된 權力誇示의 手段이며, 또 議會外部의 「平民階級」에 대한 政治教育의 手段이며, 나아가서 「權力階級」에 대한 가장 有效한 對決의 手段이었다.²²⁾

다음으로 이와 같은 「直接行動論」과 「議會政策論」에 대해서 「兩者並用論」을 주장한 堺 利彦은 兩者의 並用을 力說하면서, 모든 手段을 다하여 勞働者의 團結訓練과 教育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社會主義者들의 이와 같은 戰術上의 對立은 결국 日本社會黨의 分裂을

20) 片山 潛 「帝國憲法と社會主義」(1910年), 同 『年報 政治學』, p. 80에서 再引用
21) 同上.

22) 同 『年報 政治學』, p. 81 참조.

초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對立의 激化는 당시 日本社會의 安寧秩序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여 1907年 2월에 結社禁止케 되었다. 그後 이들 社會主義者들의 內部的 對立은 더욱 심각해져서 結果的으로 組織上的 對立을 가져와, 「議會政策論」을 역설하던 片山 潛, 田添鐵二等은 「社會主義同志會」를 結成(1907年 8月)하였고, 「直接行動論」을 주장하던 幸德秋水는 堺 利彦, 山川 均과 함께 「金曜會」를 조직(1907年 9月)하여 分裂하게 되었다. 運動의 性格에 있어서 前者가 改良主義的 傾向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後者는 急進主義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明治期의 社會主義運動은 이와같은 社會主義運動內部的 分裂속에서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즉, 1908年의 「赤旗事件」²³⁾ 그리고 이어서 1910年 5月의 이른바 「大逆事件」²⁴⁾으로 인하여 明治期의 社會主義者들은 투옥, 사형, 海外에로의 亡命, 歸鄉 등으로 무산되었던 것이다.

Ⅲ. 大正마르크스主義의 性格

1. 마르크스主義의 浸透와 아나·불論爭

1910年의 「大逆事件」以來 大正期에 들어서서 社會主義者들의 運動이 개시되는 것은 1917年 러시아의 2月·10月 革命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 時期에 등장하는 代表的인 人物로서는 河上 肇, 堺

23) 幸德秋水의 「直接行動論」以來, 社會主義者들 사이에 派閥(硬派, 軟派, 中央派)의 對立이 深化되어 갔는데, 1908年 山口孤劍이 출옥하게 되자, 各派는 親睦의 의미로 출옥환영회를 열게 되었다. 출옥환영회가 있던 후 米田隊는 경찰관과 충돌하여 重刑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른바 「赤旗事件」이라고 한다.

24) 露日戰爭後, 각지에서 勞動爭議가 일어나 社會主義運動이 고조됨에 따라 政府와의 사이에 對立이 深化되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1910年 數名의 社會主義者(宮下太吉, 新村忠雄, 古河力作 등)들이 天皇暗殺을 決行하려다가 事前에 일망타진되면서 이 事件과 직접 관련이 없는 幸德秋水 등 多數의 社會主義者들이 체포되어 1911年 幸德秋水 등 數名이 처형되었는데, 이를 「大逆事件」이라고 한다.

利彦, 山川 均, 荒畑寒村, 大杉 榮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河上 肇에 관하여 보면, 그는 1919年 1월에 個人雜誌 「社會問題研究」를 創刊하고 있는데, 이 創刊號의 序文에서 그는 「모든 사람이 大·小의 힘을 다하여 思想界의 준비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마르크스主義의 기본문헌의 번역, 해석, 연구를 行하여 日本에 있어서의 마르크스主義研究의 傳統을 구축하고 있다. 그의 社會主義에 대한 理解에는 「社會全員을 모두 勞動者로 한다」라는 등의 知的 誤謬도 있었으나 「모든 社會의 經濟組織은 그 社會에 있어서의 富의 生産力의 發達의 程度에 따라서 決定된다」는 唯物史觀에 입각해서 「今日의 資本主義的 生産組織은 멀지 않아 必然적으로 붕괴하고 社會主義的 生産組織이 당연히 이에 代身하여 出現한다」고 하여 마르크스主義理論에 傾倒하고 있었다.²⁵⁾

또 堺 利彦, 山川 均, 荒畑寒村의 경우에도 1919年 4월에 「世界思潮인 社會主義의 學問을 科學적으로 研究」하고 「世界改造準備의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社會主義研究」라는 雜誌를 창간하여 革命後의 러시아社會의 實情을 紹介하고 있다.

또 大杉 榮은 1919年 10월에 「勞動運動」이라는 雜誌를 발간하여²⁶⁾, 아나코·신디컬리즘(anarcho-syndicalism)의 勞動運動을 지도하고 있는데, 同雜誌에 발표한 그의 「勞動運動의 精神」에 의하면 勞動運動이란, 「勞動者의 自己獲得運動, 自主自治獲得運動, 人格運動」등이라고 力說하면서 노동자 자신에 의한 社會改革을 運動理念으로 할 것을 論하고 있다.²⁷⁾

이러한 狀況속에서 1920年 12월에는 「日本社會主義同盟」이 結成되고 있다. 이 同盟은 당시의 一切의 社會主義者들을 포괄하는 것을 기치로 하고 있는 것으로 明治以來의 社會主義者인 堺 利彦, 山川 均, 大杉 榮, 荒畑

25) 宮川 透·荒川幾男編, 前掲『日本近代哲學史』, p.172 참조.

26) 이 點에 관하여는 橋川文三·松本三之介編『近代日本政治思想史』II (有斐閣, 1970年), pp.29~30 참조.

27) 이 時期(1919年~1921年)에 「마르크스傳」을 비롯하여 唯物史觀과 마르크스經濟學에 관한 歐美의 解說書가 번역·간행되고 있다.

寒村, 그리고 당시의 勞動組合幹部, 젊은 知識人들이 이에 參與하고 있었다.²⁸⁾ 그러나 이 同盟은 그것이 당시 日本의 社會主義者들의 統一的인 結集體이기는 하였으나, 雜多한 社會主義思想을 포괄하는 조직체로서 實踐的인 運動의 측면에서는 스스로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즉, 이 時期에 社會主義思想을 주도하고 있었던 主要人物들의 政治的 志向을 보면, 堺利彦이라든가 山川 均이 마르크스主義의 기치하에 러시아革命을 成功시킨 불세비키의 思想을 이해하여 그것을 支持하는 立場에서 있었던가 하면, 신디컬리즘의 風潮를 이끌고 있었던 大杉 榮은 1920年 10월에 上海에서 개최된 極東社會主義者會議에 출석하여, 同會議에서 러시아代表의 各國運動內部에의 간섭을 反對하는 한편, 各國에 있어서의 諸革命黨의 運動의 自由를 주장하여 日本에 있어서의 社會主義運動의 自立性的 原則을 闡明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狀況 속에서 이 時期의 이들 社會主義者들 사이에서는 러시아革命을 둘러싸고 아나·볼論爭이 일어나게 된다. 「日本社會主義同盟」의 結社禁止後, 불세비키派의 理論的 指導者 山川 均은 「社會主義研究」誌에 레닌을 評價하는 「社會主義의 進化」(1921年 9月號), 「부르조아獨裁의 辨」(1922年 3月號)을 발표하여 계급투쟁이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獨裁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社會主義」誌에 「無產階級の 獨裁냐 共產黨의 獨裁냐」(1921年 9月號) 등을 발표하여 러시아革命에 있어서의 共產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이에 對해서 아나야코·신디컬리즘을 주도한 大杉 榮은 바쿠닌研究를 통하여 불세비키 러시아革命을 批判하는 「無政府主義者가 본 러시아革命」(1922年)을 출판한 것을 비롯하여 1921年 3月 러시아共產黨 第10回大會에서의 네프(New Economic Policy)²⁹⁾ 決定에 대해서 이를 新資本主義라고 논란하면서, 소련에서는 노

28) 「日本社會主義同盟」은 1921年 5월에 結社禁止되었다.

29) 10月革命以後에 레닌指導下에 시행된 소련의 經濟政策으로, 그 目的은 商品=貨物關係를 利用하면서 社會主義國營工業의 발전을 基 礎로 하여 이를 軸으로 資

동자라든가 농민이 레닌을 革命的 배반자라고 하여 革命的 再遂行을 의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⁰⁾

日本共產黨은 社會主義思想의 이러한 混迷속에서 1922年 1~2월에 코민테른(Comintern) 주도하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極東民族大會」에서 그 結成이 결의되어 1922年 7月 國際共產主義의 一環으로서 성립되고 있다.³¹⁾ 이 時期에 日本共產黨의 創立過程에 관하여 보면, 그 創立會議는 「極東民族大會」에 日本代表로 참가했던 高瀬 清의 셋방에서 열렸는데, 출석자는 堺 利彦, 山川 均, 近藤榮藏, 高瀬 清 등 8名이었다고 한다.

2. 山川主義와 福本主義

대개 日本學者들은 1922年以前을 마르크스主義思想의 移植·流入時代로 보고, 1922年以後를 日本마르크스主義의 形成·創出의 時期로 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마르크스主義를 日本化하는 理論的試圖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22年 以後라고 한다.

그것은 당시 불세비키派의 指導의 地位에 놓여 있었던 山川 均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원래 山川 均은 明治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幸徳秋水의 「直接行動論」을 계승하고 있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그것은 議會를 志向하여 또 議會를 통해서 國家權力을 志向하는 一切의 政治運動을 否定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明治社會主義에 있어서의 政治運動의 否定은 初期大正社會主義에 있어서 그 안티테에게(Antithese)로서 「自治」의 觀念이 成長하게

本主義의인 小經營, 小商品生産의인 農民經營의 協同心·集團化를 촉진하여 사회주의경계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있었다. 이 政策에서는 私的인 小經營의 營利活動의 自由가 허용되고 있었다.

30) 이 아나·불論爭에서 아나키스트派는 議會否定, 노동문제에 있어서의 「勞動階級」의 전투력의 분산을 특색으로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이른바 아나아코·신디컬리즘에 입각한 노동운동은 불세비키派의 노동운동에 수렴하게 된다.

31) 당시 日本共產黨의 書記長에는 堺 利彦이 취임하였다. 또 「極東民族大會」에 日本代表로 참가한 것은 德田球一, 高瀬 清, 高橋貞樹등이었다.

되었다. 大杉 榮은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즉, 「나의 政治的 理想은… 各 個人이 서로 課함이 없이 서로 合意하는, 그리고 이와 같은 個人으로 이루어지는 各 團體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課함이 없이 서로 合意하는, 個人도 團體도 모두 自治의 連合制度이다.」³²⁾ 大杉 榮에 의하면, 「自治」의 觀念이란 「이미 우리들의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個人과 個人과의 關係 및 여러 團體와 團體와의 關係사이에 이미 實現되어서, 그러면서 그 眞實된 生活이 되는 것」³³⁾이며, 그것을 「政治」의 領域에 미치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또 山川 均은 「政治」가 「自治」로 變化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즉, 「代議政治의 無用의 前提로서 現在의 방대한 政治的 單位가 分解해서, 수많은 小單位의 自由連合에 의해서 代替될 것을 주장한다. 그들이 政治란, 階級에 의한 階級の 統治支配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民衆의 순수한 共同事務를 의미한다.」³⁴⁾ 여기서 山川 均의 경우, 「自治」의 모델이 된 것은 中世自由都市에 있어서의 「自治」였으며, 특히 都市를 形成한 各 길드(guild)에 있어서의 「自治」였다.³⁵⁾ 이와 같이 初期의 大正社會主義는 「政治」의 安티테제로서 「自治」를 對置시키고 있었다. 이 경우에 「自治」의 要素로서 個人의 自由를 우선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社會의 連帶를 우선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自治」의 構造를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大杉 榮이 「自治」의 要素로서 個人의 自由를 최대한으로 강조한데 比해서, 山川 均은 크로포트킨의 영향하에 「相互扶助」와 「社會的連帶」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러시아革命觀의 分極化³⁶⁾——아나·불論爭——를 계기로

32) 大杉 榮 「個人主義者と政治運動」(1915年). 前掲 『年報 政治學』, p. 84에서 再引用.

33) 同上.

34) 山川 均 「民主主義の能率増進か, 資本主義の能率増進か」(1917年). 同 『年報 政治學』, p. 85에서 再引用.

35) 同 『年報 政治學』, p. 85 참조.

36) 同書, pp. 92~96 참조.

해서 山川 均은 「政治」의 否定에서 政治的 對抗으로 「方向轉換」을 하게 된다.

그것은 「方向轉換論」과 「協同戰線黨理論」이라는 두개의 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선 그의 「方向轉換論」에 관하여 보면, 그는 1921年의 코민테른 第3回大會에서 「勞動者階級을 새로운 革命的 戰鬪로 준비한다는 任務」를 제기한 決議에 입각해서 종래의 社會主義運動이 思想的으로 너무 純化되어 大衆과 遊離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少數知識人의 運動에 머물러 있었다는 點을 비판하면서, 「大衆속에」라고 하는 組織方針과 大衆的인 日常鬪爭이라는 戰術的 方針을 제기하여 社會主義運動의 「方向轉換」을 제창하였다(「無產階級運動의 方向轉換」, 『前衛』, 1922年 7·8月號)³⁷⁾ 뿐만 아니라, 그는 社會主義運動의 政治運動化를 志向하여 政治的 鬪爭을 否定하고 있었던 신디컬리즘傾向을 타파하고 「觀念的 革命主義」로부터의 탈피를 제창하여 「無產階級」運動, 「社會主義」運動, 「勞動組合」運動의 政治鬪爭化에의 戰術轉換을 하였다. 즉, 그는 「大衆化」, 「政治鬪爭化」라는 전술상의 「方向轉換論」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의 「協同戰線黨理論」에 관하여 보면, 그것은 그의 「方向轉換論」의 운동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政黨組織論으로서, 당시의 普通選舉法實施의 氣運이 고조되고 있었던 政治的 狀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의 「協同戰線黨理論」은 普通選舉의 實施로 인해서 日本의 「無產階級」이 資本家들에 의해서 政治的으로 分解하는 것을 저지하고, 모든 「無產階級」을 그대로 獨立된 하나의 政治勢力으로 結束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시의 社會主義運動이 政治的 方向으로 移行해 가는 과정에서 1923年 6월에 多數의 社會主義者들이 체포되게 되고, 이어서 同年 9월에 關東大地震이 일어나게 되자, 日本共產黨 解黨論이 나오게 되어,³⁸⁾ 1924年 3월에는 日本共產黨의 正式解黨決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7) 이 點에 관하여는 古田 光·作田啓一·生松敬三編 『近代日本社會思想史』Ⅱ (有斐閣, 1971年), pp. 34~35 참조.

이러한 狀況속에서, 또 한편으로 福本和夫에 의해서 日本共產黨을 再建 하려는 理論이 대두하게 된다.³⁸⁾

이제 福本和夫에 관하여 보면, 그는 東大法學部政治學科의 出身으로 松江高校의 교사직을 거쳐, 1922年에서 1924年까지 文部省 과견으로 歐美 留學을 하고 있다. 福本 自身の 回想(「革命運動裸像」)에 의하면, 歸國하기 前에 파리에서 이미 「社會의 構成 및 變革의 過程」, 「經濟學批判의 方法論」, 「黨組織論」에 관한 3篇의 草稿를 정리하여, 第1次大戰後의 독일·오스트리아의 인플레이의 덕택으로 산 값으로 古書·新書 數萬卷을 구입하여 귀국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 留學時節의 蓄積을 基盤으로 하여 歸國後에는 일약 마르크스主義理論家로서 彗星처럼 나타났다고 한다.⁴⁰⁾

福本和夫는 雜誌 「마르크스主義」(1924年 5月 창간)에 그의 處女論文 「經濟學批判에 있어서의 마르크스 『資本論』의 범위를 論함」(1924年 12月 號)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어서 1925年에 들어서서는 「唯物史觀의 構成過程」(1925年 2月 號) 등, 수많은 論文을 發表하여, 이른바 마르크스의 「資本의 內在的 運動法則」에 입각하여 「資本의 現實的 運動」을 마르크스의 唯物辨證法과의 連貫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마르크스主義를 革命理論으로서 論하였다. 뿐만 아니라, 福本和夫는 山川 均의 「方向轉換論」은 「資本의 現實的 運動」과정에서 해결된다고 봄으로써 山川 均과 對立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唯物辨證法의 方法」에 의해서 「無產階級」의 「方向轉換」의 문제를 연구하여, 山川 均의 「協同戰線黨理論」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서 山川 均의 「協同戰線黨理論」에 대해서 「全國的인 一大政黨樹立」의 必要性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그는 「無產者結合에 관한 마르크스의 原理」를 제시하여 「結合」이전에 먼저 마르크스의 要素를 「分離」하여

38) 中村菊男·中村勝範 『日本社會主義政黨史』(經濟往來社, 1966年), pp. 72~73 참조.

39) 第2次日本共產黨의 再建에 관하여는, 生松敬三 「マルクス主義と知識人」(『岩波講座 日本歴史』19, 岩波書店, 1976年), pp. 290~291 참조.

40) 同論文, p. 292 참조.

結晶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組織論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마르크스主義的인 政治意識을 結集하기 위해서 非마르크스主義的인 思想, 특히 신디컬리즘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雜誌「마르크스主義」에 「山川氏의 方向轉換에 서부터 시작해서는 안된다」(1926年 2月號 및 5月號)라는 論文을 발표하여 당시의 左翼理論을 주도하던 山川理論에 도전하였다.

福本和夫의 山川批判의 要點은 신디컬리즘運動과 政治運動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오히려 兩者의 折衷主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福本은 어디까지나 非마르크스主義的인 意識을 비판·극복함으로써 마르크스主義的인 政治意識을 分離·結晶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福本和夫의 이러한 「分離·結合論」은 山川 均의 이론바 多數大衆의 獲得=結合을 否定하고 理論鬭爭에 의해서 순수하게 結晶되는 少數前衛에 의존하는 sect主義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山川 均의 이론바 「方向轉換論」·「協同戰線黨理論」과 福本和夫의 이론바 마르크스主義的인 政治意識의 結晶을 지향하는 「分離·結合論」과의 共產主義의 黨組織을 둘러싼 對立은 결과적으로 日本마르크스主義의 分裂을 가져오게 되었다.

大正末期의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의 山川主義와 福本主義는 그 후 1927年 코민테른 日本委員會에 의해서 채택된 「日本問題에 관한 決議」(1927年 테-제)에서 철저히 批判되었다. 즉, 이 「決議」에서 山川主義는 共產黨의 임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共產黨을 左翼勞動組合에 해소해버리는 「清算主義」라고 批判하고 있는가 하면, 이의 克服을 志向한 福本主義는 「理論鬭爭致上論」, 「知識階級」의 과대한 評價, 「分離·結合論」을 주장함으로써 現實의 政治·經濟狀況을 경시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理論에 치중함으로써 혁명적인 大衆鬭爭 내지는 勞動運動으로부터 遊離된 sect主義라고 批判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福本主義는 轉落하고, 한편 反福本主義의 입장에서 있으면서 「1927年 테-제」와 對立되고 있었던 山川 均, 堺利彦, 荒畑寒

村 등은 「正統的 마르크스·레닌主義雜誌」, 「戰鬪的 마르크스트理論雜誌」를 표방하는 「勞農」을 1927年 12월에 創刊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山川 均의 協同戰線黨을 實踐理念으로 하는 「勞農派」의 出發인 것이다.

IV. 마르크스主義와 「社會科學」

明治社會主義以來 山川主義와 福本主義의 分裂에 이르기까지 日本에 있어서의 마르크스主義의 傾向을 보면, 代表的인 例로 福本和夫의 마르크스主義研究와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마르크스主義理論을 日本資本主義의 分析에 적용하여 理論化하는 것은 아니었다. 「1927年 테-제」의 山川主義와 福本主義에 대한 批判도 바로 이들 兩主義가 마르크스主義의 立場에서 勞動運動을 指導하는 구체적인 戰術論을 제기할 뿐, 日本資本主義에 대한 理論的 認識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戰略目標을 欠如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日本마르크스主義理論은 실로 「1927年 테-제」를 계기로 하여 日本資本主義에 대한 現狀分析過程에서 深化되었다.

日本에 있어서의 마르크스主義의 紹介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1890年代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社會主義運動을 추진하는 過程에서 紹介되는 것이었다.

우선 明治時代に 紹介된 代表的인 마르크스主義理論에 관한 것을 보면, 1902年의 西川光二郎의 『칼·마르크스』, 部分翻譯이기는 하나 1904年의 堺 利彦·幸徳秋水共譯 「共產黨宣言」(『週間平民新聞』), 1906年의 堺 利彦譯으로서 英겔스의 「空想的 및 科學的 社會主義」(『社會主義研究』), 1907年의 山川 均의 「마르크스의 資本論」의 紹介(『大阪平民新聞』), 1909~10年의 安部磯雄의 『資本論』의 部分譯(『社會新聞』), 1903年의 幸徳秋水의 『社會主義神髓』와 片山 潛의 『나의 社會主義』, 1907年의 森近運平·堺 枯川 『社會主義綱要』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분히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紹介의 領域에 머물러 있었으며, 또 社會主義運動을 위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傾向은 1910年代 이래 1930年代에 걸쳐서도 계속되어——例를 들어, 河上 肇의 『社會問題研究』(1919年 1月부터 1930年 10月까지)를 통한 마르크스主義의 紹介——量的으로 增大하나, 한편으로 1910年代末부터 高島素之에 의한 『資本論』의 完譯(1919年~1925年完成), 『마르크스·엥겔스全集』(1927年~1929年)의 出版, 또 이 期間에 大山郁夫·河上肇監修의 『마르크스主義講座』 등의 刊行은 社會科學으로서의 마르크스主義의 學問的 基盤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時期에 마르크스主義와 관련하여 아카데미즘의 動向을 보면, 1919年 東京帝大와 京都帝大에 있어서 法學部로부터 經濟學部가 獨立하고 私立大學에서도 經濟學部가 獨立해 감으로써, 學問의 領域에서 마르크스主義理論에 대한 研究가 進行——例를 든 東大經濟學部の 경우를 보면, 高野岩三郎의 指導下에 岡上守道, 森戶辰男, 櫛田民藏, 權田保之助, 大內兵衛 등의 同人會——되고 있다.⁴¹⁾

뿐만 아니라 1920年代初期에는 大內兵衛, 櫛田民藏, 森戶辰男, 大塚金之助, 岡上守道 등, 多數의 經濟學者가 독일에 留學하여 마르크스主義를 공부하고 있으며, 이 時期에 三木 清, 羽仁五郎, 矢內原忠雄등도 독일을 訪問하고 있다. 이 時期에 大內兵衛의 回顧談에 의하면, 敗戰後 독일의 인프레下에서는 文部省의 「留學生費用으로 돈이 남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마르크(Mark)로 잔뜩 부른 가방을 끼고 거리의 쇼윈도우(showwindow)를 걸어다녀도 古書도 新書도 모두 사버려, 그 이상 한 켤의 책도 더 사고 싶은 것이 없었다」⁴²⁾고 한다. 그 後 마르크스 經濟學은 1928年の 河上 肇의 『資本論入門』, 「經濟學大綱」을 계기로 해서 크게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日本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가 「社會科學」으로서 定着해 가는 것은 福本主義以來 後述하는 『日本資本主義發達史講座』에 걸쳐서라고 할 수

41) 石田 雄 『日本の社會科學』(東京大學出版會, 1984年), p. 110 참조.

42) 大內兵衛 『經濟學五十年』(上)(東京大學出版會, 1959年). 石田 雄, 同 『日本の社會科學』, p. 110에서 再引用.

있다. 丸山眞男은 이 點에 관해서 「日本에 있어서의 마르크스主義의 思想史的意義」를 論하면서, 「첫째로 日本의 知的 世界는 이것에 의해서 처음으로 社會的 現實을 政治라든가, 法律이라든가, 哲學이라든가, 經濟라든가 個別的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相互關聯시켜서 綜合的으로 考察하는 方法을 배웠다」⁴³⁾고 지적하고 있다. 雜誌 「마르크스主義」의 編輯에 관계하고 있던 林房雄은 福本和夫가 1924年에 同雜誌에 投稿한 「經濟學批判에 있어서의 마르크스 『資本論』의 범위를 論란」에 대한 印象을 다음과 같이 回想하고 있다. 「읽어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引用되고 있는 文章은 나 같은 사람은 한번도 읽어 본 적이 없는 重大한 文章들 뿐이다. 堺利彦도, 山川均도……佐野學도, 佐野文夫도……引用해 준 적이 없다. 日本의 마르크스主義가 얼마나 無學이었는데가 깨닫게 하는 新鮮한 內容이 담겨 있다.……完全히 압도된 형태로 나는 무조건 發表하도록 西雅雄에게 추천하였다」.⁴⁴⁾ 그밖에도, 福本知夫는 「唯物史觀의 構成過程」(1925年) 및 『社會의 構成 및 變革의 過程』(1926年) 등에서, 資本主義社會의 現實과 그 變革過程을 全體的으로 파악하는 것이야 말로 唯物史觀의 과제라고 力說하면서, 經濟過程, 政治過程, 意識過程의 關聯을 밝히려 하였다.⁴⁵⁾ 그러나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福本和夫는 「1927年 테-제」에서 共產黨을 大衆組織으로부터 고립시키는 理論的 오류를 범하였다고 批判을 받아 一舉에 실각함과 동시에 理論的 影響력도 상실하고 말았다.

日本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가 日本資本主義分析을 매개로 하여 「社會科學」으로서 成長하는 것은 「1927年 테-제」以後였다.

이 時期에 「勞農派」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日本資本主義의 발전과정을 分析하여 封建的인 土地所有와 이에 의한 舊特權은 事實상 파괴되어 있으며, 그 物質的 基礎를 상실한 封建勢力은 「부르조아」에 종속되게 되어 지금

43) 丸山眞男 『日本の思想』(岩波書店, 1961年), p. 55.

44) 林房雄 「文學的回想」(1953年), 石田 雄, 前掲 『日本の社會科學』 p. 114에서 再引用.

에 이르러서는 「부르조아」를 自己基盤으로 하는 「부르조아」의 政治權力이 國家權力的 構造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르조아」의 權力이 完成되어 있는 한, 日本에 있어서의 革命的 성질은 「부르조아」革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당연히 社會主義革命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1927年 테이제」의 正當性を 실증하고 마르크스主義原則을 闡發하려고 하는 渡邊政之輔, 市川正一, 野呂榮太郎, 服部總之 등은 明治維新에까지 소급하여 日本資本主義의 封建的인 諸關係의 殘存을 해명하여, 그 結果로서 野呂榮太郎의 「日本資本主義發達史」(「社會問題講座」, 1927年), 服部總之의 「明治維新史」(1927年) 등의 唯物史觀史學을 이룩하게 된다. 여기서의 그 主眼點은 生産手段으로서의 土地所有가 生産者와 어떤 關係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있어서의 基本觀點은 日本의 경우 아직 封建勢力은 「부르조아」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國家權力的 機構에 있어서의 이러한 封建遺制의 解明을 통하여 「부르조아」革命과 이의 社會主義革命에의 급속한 轉化에의 必然性を 立證하여 「1927年 테이제」의 正當性を 제시하려 하였다.⁴⁵⁾ 이러한 資本主義論爭은 그 後 日本의 國家體制에 대한 포괄적 分析을 목표로 한 『日本資本主義發達史講座』(全7卷, 1932年~1933年)의 刊行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講座』는 1931年 中葉 野呂榮太郎과 岩田義道에 의해서 그 刊行이 立案되어, 平野義太郎, 山田盛太郎, 大塚金之助, 服部總之, 羽仁五郎 등 多數가 參與하여 마르크스主義理論家의 協同作業이라는 形態로 추진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講座派」를 形成하게 되어, 그 後 「勞農派」와 日本資本主義論爭을 展開하게 된다. 日本資本主義論爭에 있어서 兩派의 根本的인 차이점은 近代日本의 國家體制의 發展段階를 半封建的인 絶對主義天皇制로 보느냐(「講座派」), 미발달된 부분을 내포하면서도 「부르조아」國家로 보느냐(「勞農派」) 하는 것이었다.

45) 同書, p. 115 참조.

46) 宮川透·荒川幾男編, 前掲 『日本近代哲學史』, pp. 180~181 참조.

이리하여 「講座派」의 업적은 日本에 있어서의 마르크스主義의 受容·展開에 획기적인 意義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後의 社會科學이라든가, 歷史學, 思想一般에 深대한 影響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思想的 狀況속에서 岡 邦雄, 三枝博音, 戶坂 潤, 永田廣志, 服部之總, 本多謙三 등에 의해서 結成된 「唯物論研究會」(1932年 10月)를 통해서 마르크스主義는 哲學의 領域에서도 深化되어 갔다.⁴⁷⁾

V. 結 論

以上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日本에서의 마르크스主義는 明治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幸徳秋水의 「直接行動論」과 片山 潛, 田添鐵二 등의 「議會政策論」의 分裂, 大正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大杉 榮과 山川 均의 「아나·불」論爭, 「山川主義」와 「福本主義」의 對立, 昭和初期에 있어서의 「勞農派」와 「講座派」의 日本資本主義論爭등, 1900年代로부터 1930年代에 걸쳐, 마르크스主義運動에 있어서의 國家權力의 획득을 위한 戰術論의 문제로부터 日本資本主義에 대한 歷史的 分析을 비롯한 마르크스主義的 社會科學의 成長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主義의 日本化的 試도를 부단히 追求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時期에 日本에서의 마르크스主義는 實踐的 運動의 레벨에서 보다는 知的 認識의 레벨에서 크게 成長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理由는 客觀的 與件으로서 당시의 日本社會가 이미 日本의 傳統文化를 基幹으로 하여 강력한 天皇制의 國家體制를 확립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主體的 與件으로서 이 時期의 日本마르크스主義의 運動이 日本社會의 特殊性에 유의하기보다는 마르크스主義思想의 普遍성과 體系性에 커미트하여 教條主義的 性格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당시의 日本에서의 마르크스主義는 政治的 領域에서 보다는 學問的 領域에서 그 理論的 深化를 추구하는데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47) 本論文은 原資料不足으로 2次資料에 依거하였음을 밝혀 둔다.